

“영공 수호·정예전투조종사 양성 힘쓰겠다”

●김중수 제54대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취임

구성원 소통·신뢰 구축 강조...규정·절차 준수 당부
비행·지상안전 보장 속 주임무 완수...철통안보 다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바탕으로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서남부 영공 수호와 정예전투조종사 양성의 주임무를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제54대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에 김중수 준장(진)이 부임했다.

6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중전투사령관 주관으로 기지 내 강당에서 제54대·54대 단장이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김 신임 단장은 김준호 공중전투사령관으로부터 지휘권을 상징하는 부대기를 건네받으며 대한민국 서남부 영공 수호와 최강의 정예

전투조종사 양성을 책임지는 제1전투비행단 단장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김 신임 단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54대 단장으로서 헌신하고 드론작전사령부로 이임하는 변성은 장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단장으로서 공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도, 항상 최상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겸비하지도 않았다”며 “비행단 구성원



모두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더 좋은 비행단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선 구성원 간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고 김 신임 단장은 강조하며 기본과 원칙은 물론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식상한 이야기라고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은 보장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주임무를 완수하며 더 좋은 비행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자”고 독려했다.

끝으로 김 신임 단장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마음 깊이 새기고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자”며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데 단장이 선봉에 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김 신임 단장은 공군사관학교 45기로, 1997년 공군 소위로 입관해 17전비 항공작전대장, 공군본부 비서실 지휘관리과장, 국방부 국가안보실 행정관 등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안재영기자

광주시교육청 첫 홍보대사 지역출신 배우 차선우 위촉



광주시교육청이 개청 이래 첫 공식 홍보대사를 선정, 광주교육 홍보에 나선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일 지역 출신 배우 차선우를 광주교육 첫 번째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위촉식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강당에서 이정선 교육감 등 교육 관계자들과 ‘우리 학교 홍보단’ 학생들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단 발대식과 함께 열린다.

향후 차선우는 광주 학생들을 응원하고, 광주교육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의 공익캠페인, 재능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차선우는 지역에서 동림초등학교와 서강중학교를 졸업하고, 아이돌 그룹 B1A4로 데뷔했다. 이후 ‘응답하라 1994’ 등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 연극무대 등을 통해 탄탄한 연기력과 진정성 있는 이미지를 갖춘 배우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광주교육의 첫 번째 홍보대사 위촉에 흔쾌히 응해 준 차선우 배우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광주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광주교육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다이기자



정종근 국립장성순채원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장성순채원은 “최근 정종근 원장이 ‘바이 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에서 시작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1회용품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 등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을 약속하는 범국민 실천 운동이다.

정종근 원장은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생활 습관 실천이 악화되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국립장성순채원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종근 원장은 다음 챌린지를 이어갈 주자로 이수성 국립형성순채원장과 조영순 국립철곡순채원장을 지목했다. /장성=김문태기자



여수소방, 봄철 화재 예방 캠페인

여수소방서는 “최근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산불 예방을 위해 화점면 일원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참여자들은 안전한 산행과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물·플래카드를 활용하여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봄철 부주의 화재 예방 ▲봄철 입야·산불 예방 ▲취사·소각행위 금지 등이다.

또한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 원인(담배꽂이, 음식물쓰레기 등)과 이에 따른 예방 수칙도 함께 홍보했다.

박원국 여수소방서장은 “작은 불씨에 의해 큰 화재가 발생한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진선기자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우수사례집 발간 기념식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단장 최갑남)은 “최근 2024년 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우수 사례집 발간에 참여한 센터는 꽃동산지역아동센터, 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 서남지역아동센터, 서산지역아동센터, 소나무지역아동센터, 우성지역아동센터 등 6개소다.

사례집은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계획서, 프로그램 일지, 평가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수록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최갑남 단장은 “이번 우수사례집이 지역아동센터 모두의 발전과 평가 준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프로그램 공유 및 발간, 편집으로 도움을 준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발간위원으로 참여한 이보람 꽃동산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이번 기회로 각 기관의 강점을 보고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며 “같은 고민을 갖고 있을 다른 센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명진기자



베트남 하장성 대표단,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방문

광주시는 6일 “응우옌 반 선(Nguyen Van Son) 하장성인민위원장 등 베트남 대표단이 지난 3-4일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방문, 세계지질공원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응우옌 반 선 인민위원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외교부 국장, 동반지질공원 관리위원회 국장 등 베트남 하장성과 동반지질공원 공직자 15명으로 구성됐다.

대표인 선 인민위원장은 베트남 제1급 행정구(하장성)를 관리하는 지도자로, 우리나라의

도시사급에 해당한다.

대표단은 지난 2022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과 베트남 동반·낙농 세계지질공원 간에 체결한 ‘세계지질공원 업무교류를 위한 협약’의 후속 조치로, 무등산권 지질공원을 방문했다.

무등산 중심사 지구 센터에서 환영회와 브리핑을 시작으로 평촌도에공방, 화순 운주사, 담양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 지질 명소, 지오파터너 등을 방문했다. 또 무등산권에 대한 역사·문화·자연 등 다양한 형식의 지질체험교육과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박선강기자

구례 토지파출소, 협력단체 합동 음주운전 단속

구례 토지파출소는 “최근 관내 토지면 소재 지방장 앞 노상에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협력단체 합동 일제 음주단속 활동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교통경찰·토지파출소·자율방범대 등 10여명이 참여해 범죄환경 조기 차단과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을 하면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

장영철 토지파출소장은 “이번 합동 음주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협력단체를 더욱



활성화해 합동순찰·범죄 예방 진단 등 주민과 호흡하는 공감 받는 치안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기자

전남도-전남새마을회 ‘지방소멸 극복 상생 발전’ 협약

전남도와 전남도새마을회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 지역현안 해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3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개최된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 전남도새마을회와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을 하고 도청 파트너로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따뜻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 협력 ▲지역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활성화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노력 ▲지역 현안 행사 성공 개최 협력이다.

기념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서동

욱 전남도회의의장, 양재원 회장, 22개 시·군 1천여명의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회원이 참석했다.

전남도새마을회는 깨끗한 전남 만들기 범도민 운동, 전남 우수 농산물 알리기, 탄소중립 실천 운동, 영·호남 교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명창환 부지사는 “새마을회의 나눔·배려·연대의 공동체 정신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 지금 전남의 위기를 헤쳐 가는데 꼭 필요하다”며 “자랑스러운 새마을 역사를 잘 계승·발전시켜 세계로 뽐내려는 전남 대도약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경남도청 산악회,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홍보 앞장

경남도청 산악회가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홍보와 모집 활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청 산악회와 경남도청 산악회가 양 지역 상생협력과 소통을 위한 연합 산행을 지난 4일 장흥 천관산에서 실시하고 우의를 다졌다.

이번 산행은 전남도립공원이자 2021년 명승 제119호로 지정된 천관산(해발 723m)에서 전남도 주관으로 이뤄졌다. 경남도청 산악회원 24명과 전남도 32명, 장흥군 11명 등 67명이 참석해

영호남 화합과 교류를 다졌다.

산행에 앞서 경남도청 산악회는 전남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의 경남도내 홍보와 모집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친선 산행 중 천관산 환경 정화활동(플로킹)을 펼쳐 두 지역의 우의를 돈독히 했다.

전남도청 산악회는 49명으로 구성된 직장동호회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정기 산행과 함께 플로킹을 실천하는 모범 동호회다. /양시원기자

나주경찰-중흥골드스파 ‘임직원 복지 향상’ 협약

나주경찰서는 “최근 가정의 달을 맞아 중흥골드스파&리조트와 임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경찰청 소속 임직원의 중흥골드스파&리조트 객실(콘도) 및 부대시설(위터라) 이용 요금에 특별 할인을 적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장진영 나주경찰서장은 “경찰청 소속 전 직원의 복지 향상은 내부 만족으로 이어지고, 다시 외부 만족으로 연계돼 결국 주민의 뜻에 부합하



는 치안 서비스로 승화되는 선순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기자